하나증권 리서치센터 | 2025년 12월 10일

HANA Global Weekly

하나증권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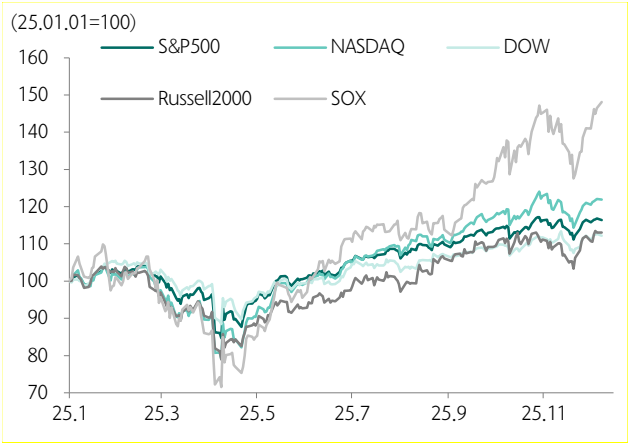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증시 동향

- 미국 증시는 AI 버블 우려가 진정된 점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 델은 실적 발표에서 AI 서버 주문이 급증했다고 밝혔고, 오라클의 장기 리스 부채 부담도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평가. 미국 추수감사절 쇼핑데이터 외형 성장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요인
- 한편,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이 유력. 친시장적인 연준 의장에 대한 기대로 금리인하 기대감 더욱 확대. 다만, 부정적인 소비자 기대 조사로 인해 매파적 인하 가능성 우려가 나타남

종가 기준일: 2025.12.8

미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S&P500	6,846.5	(0.4)	0.5	1.8	16.4
	NASDAQ	23,545.9	(0.1)	1.2	2.4	21.9
	DOW	47,739.3	(0.5)	1.0	1.6	12.2
	Russell2000	2,521.0	(0.0)	2.1	3.6	13.0
	SOX	7,375.2	1.1	5.1	6.2	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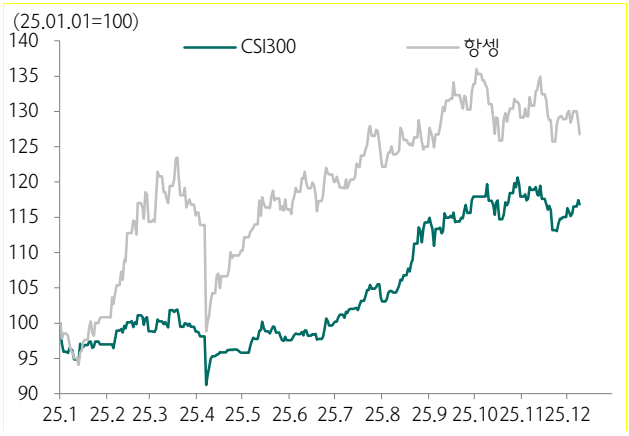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중국 증시 동향

- 12월 중앙정치국회의도 8일 개최되면서 정책 기대감에 시장 하락 중단.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재정•통화 확장 기조 유지, 다만 내수 확대와 국내시장 건설 더 강조. 또한 증감회 우칭 주석이 우량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 개선, 자본 규제 및 레버리지 상한 완화 등을 통해 자본 활용 효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보험/증권업에 직접적인 호재로 시장에 새로운 자금 유입을 촉발
- CPO 테마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며, 푸징테크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엔비디아 H200 AI 칩을 중국에 판매 허용한다고 발표

종가 기준일 : 2025.12.09

중국 주요 지표 그래프



자료: Wind, 하나증권

		종가 (pt)	1D (%)	1W (%)	1M (%)	YTD (%)
지수	CSI300	4,584.5	0.0	1.3	(2.0)	16.5
	항셍	26,085.1	0.0	0.9	(0.6)	30.0

자료: Wind, 하나증권

다음주 주요 이벤트 및 관전 포인트

	날짜	시간	중요도	관전 포인트
미국 11 월 비농업고용지수	12/16	22:30	★★★	셧다운 미뤄진10월 데이터 동시 발표 예정
유럽 12 월 ECB 통화정책회의	12/18	22:15	★★★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2.0%으로 3연속 동결
영국 12 월 BOE 통화정책회의	12/18	21:00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0%으로 2연속 동결
일본 12 월 BOJ 금융정책위원회	12/19	12:00	★★★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0.5%로 6연속 동결

자료: 블룸버그, 하나증권

투자 유망 ETF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MADE (iShares US Manufacturing ETF)	FTLS (First Trust Long/Short Equity ETF)	PAVE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SHLD (Global X Defense Tech ETF)	HACK (Amplify Cybersecurity ETF)	QGRO (American Century US Quality Growth)	VCIT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투자 유망 종목

엔비디아 (NVDA.US)	애플 (AAPL.US)	알파벳 (GOOGL.US)	브로드컴 (AVGO.US)	제이피 모건 (JPM.US)
팔란티어 (PLTR.US)	캐터필러 (CAT.US)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알리바바 (9988.HK)	쓰위안전기 (002028.CH)

실적 발표

기업명	티커	발표 날짜	컨센
오라클	ORCL	12월 10일 장후	FY26 2분기 매출 161.7억, EPS 1.63 달러
브로드컴	AVGO	12월 11일 장후	FY25 4분기 매출 169.4억, EPS 1.87 달러
코스트코	COST	12월 11일 장후	FY26 1분기 매출 672.7억, EPS 4.28 달러

금주의 리포트

기업/산업명	제목
세일즈포스(CRM.US)	예상보다 빠른 AI 수익화 & 계약 성장 모멘텀에 주목
스노우플레이크(SNOW.US)	3분기 실적 긍정적이나 아직은 해답을 찾기 어려운 구간
미국 이슈 코멘트	GPU, TPU 논쟁은 시기상조: 엔비디아 긍정적 관점 지속
미국 이슈 코멘트	미국 정부의 H200 판매 승인: 미국 정부와 엔비디아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선진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증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세계	0.5	1.7	5.1	15.4	19.8	0.0	0.1	0.2	0.6	0.6	19.1	19.1	19.1	19.1	18.7	19.7	14.5	3.2	3.2	3.2	3.1	3.0	3.3	2.2	
에너지	0.4	0.8	4.7	5.6	10.5	-0.0	0.1	-0.0	-0.9	-0.7	14.2	14.0	14.1	13.5	11.9	14.4	7.8	1.7	1.6	1.7	1.6	1.6	1.8	1.3	
소재	-0.1	4.0	3.7	14.2	23.1	0.0	0.1	0.6	0.7	0.7	16.2	16.1	15.7	17.1	15.9	17.3	11.9	2.1	2.0	1.9	2.0	1.8	2.1	1.6	
산업재	1.8	0.8	2.7	16.0	22.8	0.0	0.1	0.1	0.4	0.4	21.6	21.3	21.8	21.3	20.3	22.3	15.8	3.7	3.7	3.7	3.6	3.4	3.8	2.5	
자유소비재	-0.4	-1.1	0.2	4.4	7.4	0.0	0.0	0.2	0.1	0.1	22.0	21.8	22.1	22.5	21.4	22.9	15.9	3.6	3.6	3.7	3.7	3.7	3.8	2.7	
필수소비재	-1.7	0.2	-2.7	0.9	5.3	0.0	0.0	0.0	0.1	0.2	19.2	19.3	19.0	19.6	19.2	20.3	17.1	4.0	4.1	4.0	4.1	4.0	4.2	3.5	
건강관리	-1.5	3.8	7.5	5.5	10.9	0.0	-0.0	0.0	0.2	0.2	18.2	18.3	17.3	16.9	17.8	20.3	15.7	4.0	4.1	3.8	3.7	3.9	4.4	3.5	
금융	0.8	2.0	2.6	16.9	21.5	0.0	0.1	0.3	1.2	1.2	13.0	13.0	13.0	13.2	13.0	13.5	9.2	1.7	1.7	1.7	1.7	1.6	1.7	1.1	
정보기술	1.8	2.1	11.7	24.7	28.0	0.0	0.2	0.5	0.9	0.9	25.7	25.7	26.6	27.0	27.4	29.6	19.2	7.9	7.9	8.0	7.5	7.5	8.4	4.6	
커뮤니케이션	-0.2	4.3	4.8	29.7	31.8	0.0	0.1	-0.0	0.7	0.7	21.2	21.0	20.2	20.1	18.7	21.2	14.0	3.9	3.9	3.8	3.9	3.3	4.0	1.9	
유틸리티	-2.1	-2.9	5.3	14.2	19.1	0.0	0.0	0.1	0.5	0.5	16.0	16.3	16.4	15.5	15.1	16.6	12.5	1.8	1.8	1.9	1.7	1.7	1.9	1.4	
미국	0.6	1.9	5.3	12.6	17.0	0.0	0.1	0.2	0.5	0.5	22.3	22.2	22.2	22.2	22.3	22.9	16.5	4.6	4.6	4.6	4.6	4.4	4.7	3.3	
에너지	-0.6	1.2	4.3	2.0	7.4	-0.0	0.1	-0.1	-0.7	-0.6	16.4	16.1	16.3	15.5	14.3	16.6	9.2	2.0	2.0	2.0	2.0	2.0	2.2	1.7	
소재	-2.6	3.1	-0.7	8.6	18.2	0.0	0.1	0.6	0.8	0.8	18.2	18.3	17.7	19.9	19.5	21.4	15.2	2.6	2.6	2.5	2.7	2.5	2.7	2.0	
산업재	1.9	0.5	1.9	8.3	15.6	0.0	0.0	0.1	0.2	0.2	24.5	24.3	24.5	24.2	23.6	25.5	17.7	6.0	6.0	6.0	6.0	5.7	6.3	4.1	
자유소비재	-0.4	-1.2	0.1	1.2	4.9	-0.0	0.0	0.2	0.4	0.4	26.8	26.6	27.0	27.7	29.0	30.1	19.3	7.3	7.3	7.6	7.9	8.5	8.8	6.1	
필수소비재	-2.1	1.0	-2.8	-3.1	1.4	0.0	0.0	0.0	-0.0	-0.0	21.1	21.4	20.7	21.8	21.4	22.6	17.5	5.7	5.7	5.6	6.1	5.8	6.2	4.7	
건강관리	-2.6	3.2	9.7	5.3	10.2	0.0	-0.0	0.0	0.1	0.0	18.7	18.9	17.8	17.1	17.9	20.3	15.8	4.6	4.6	4.3	4.2	4.4	4.9	3.8	
금융	1.4	1.9	1.7	8.4	13.1	0.0	0.1	0.3	0.9	0.8	15.7	15.5	15.6	16.2	16.5	17.0	10.6	2.2	2.2	2.2	2.2	2.1	2.3	1.3	
정보기술	2.3	2.0	10.2	22.8	26.2	0.0	0.2	0.5	0.9	0.8	27.9	28.0	29.2	29.4	30.1	32.3	20.3	10.6	10.6	10.7	10.3	10.3	11.4	6.3	
커뮤니케이션	0.1	7.0	7.6	30.9	32.1	0.0	0.0	-0.0	0.7	0.6	22.3	22.0	20.6	20.5	19.3	22.3	13.1	4.7	4.7	4.4	4.6	4.1	4.7	2.2	
유틸리티	-3.4	-4.9	3.6	7.8	12.8	0.0	-0.0	0.1	0.3	0.3	18.5	18.8	19.2	18.1	17.8	20.0	14.1	2.1	2.2	2.2	2.1	2.1	2.3	1.5	
일본	1.4	2.2	9.2	23.8	21.2	0.0	0.2	0.4	0.7	0.7	16.7	16.6	17.1	16.3	15.4	17.4	12.3	1.7	1.7	1.7	1.6	1.4	1.7	1.1	
에너지	2.4	10.7	20.5	40.4	39.2	0.6	1.1	1.5	1.1	1.4	10.9	11.5	11.3	10.8	8.8	12.5	6.1	0.8	0.8	0.7	0.7	0.6	0.8	0.4	
소재	2.3	5.5	4.4	4.9	4.5	0.0	0.1	-0.0	-0.1	-0.1	14.5	14.2	14.0	13.7	13.7	15.6	8.5	1.1	1.1	1.0	1.0	1.0	1.4	0.8	
산업재	3.3	1.5	12.3	29.1	27.2	-0.0	0.4	0.5	0.7	0.7	17.4	16.9	18.6	17.0	15.5	18.9	10.8	1.9	1.8	1.9	1.7	1.5	1.9	1.1	
자유소비재	-0.5	0.2	3.8	20.4	9.8	0.0	0.1	0.6	-0.2	-0.2	16.7	16.9	16.9	17.8	13.5	18.1	10.1	1.4	1.4	1.4	1.4	1.2	1.5	1.0	
필수소비재	-4.0	0.8	3.7	8.2	9.9	0.0	0.0	0.2	0.1	0.2	21.8	22.5	21.4	21.5	20.4	22.9	18.2	2.1	2.1	2.0	1.9	1.9	2.2	1.6	
건강관리	-0.8	3.4	3.3	0.3	2.3	0.0	0.1	0.1	0.8	0.7	17.7	18.0	17.3	17.4	20.7	23.4	15.2	2.3	2.3	2.2	2.2	2.2	2.6	1.8	
금융	0.5	9.1	7.0	26.0	26.1	0.0	0.4	0.6	2.5	2.5	11.2	11.1	10.7	11.0	12.4	13.5	8.5	1.2	1.2	1.1	1.1	1.0	1.2	0.6	
정보기술	2.8	2.1	24.6	31.3	29.1	0.1	0.2	0.3	0.3	0.3	26.0	25.7	26.9	22.5	21.4	28.4	16.5	3.2	3.2	3.2	2.7	2.4	3.4	1.8	
커뮤니케이션	4.0	-7.2	1.8	35.5	33.9	-0.1	0.1	0.0	0.6	0.7	24.2	22.6	26.6	23.4	20.9	28.0	13.2	3.0	2.9	3.2	2.8	2.1	3.4	1.5	
유틸리티	-2.7	5.5	13.7	38.0	39.3	-0.1	-0.5	-0.7	-1.6	-1.5	11.9	12.3	10.7	9.7	7.3	12.8	5.0	0.9	0.9	0.8	0.8	0.6	0.9	0.5	
유럽	0.6	2.3	4.8	11.0	13.8	0.0	0.0	0.2	0.2	0.1	15.1	15.0	14.8	14.8	14.0	15.4	11.6	2.1	2.1	2.1	2.1	1.9	2.2	1.6	
에너지	-0.7	-0.2	6.2	8.4	8.1	-0.0	0.1	0.3	-1.8	-1.8	10.3	10.3	10.5	10.1	8.2	10.8	5.5	1.3	1.3	1.3	1.3	1.1	1.5	1.0	
소재	-0.3	2.8	3.5	1.1	5.1	-0.0	0.1	0.4	-0.4	-0.6	16.6	16.3	16.4	17.1	15.4	17.4	11.5	1.8	1.7	1.7	1.7	1.7	1.9	1.4	
산업재	2.9	1.6	2.5	16.4	20.9	0.0	0.0	0.1	0.3	0.3	21.2	20.8	21.0	20.9	19.5	22.0	15.2	3.7	3.6	3.6	3.7	3.4	3.8	2.6	
자유소비재	0.0	2.0	6.7	-2.6	-1.3	0.0	0.2	0.3	-1.0	-1.0	16.6	16.4	16.6	16.1	14.7	17.3	10.9	1.8	1.8	1.7	1.7	1.7	2.0	1.5	
필수소비재	-2.5	-1.5	-1.7	1.5	2.5	0.0	0.1	0.1	0.0	0.0	15.5	15.6	15.7	15.7	15.2	18.8	14.6	2.8	2.9	2.9	2.9	2.7	3.2	2.6	
건강관리	0.0	5.8	7.1	-1.3	3.9	-0.0	-0.0	-0.0	0.0	-0.1	15.9	16.0	14.9	14.8	16.2	18.9	13.1	3.3	3.3	3.1	3.1	3.4	4.0	2.8	
금융	0.6	3.3	5.6	31.7	32.9	0.0	0.1	0.4	1.3	1.2	10.7	10.8	10.6	10.7	9.5	11.3	7.7	1.4	1.4	1.4	1.4	1.1	1.5	0.8	
정보기술	3.2	5.0	16.2	11.5	12.5	0.0	-0.1	0.0	0.2	0.1	29.9	29.3	27.7	26.0	28.2	30.6	18.9	5.3	5.2	5.1	4.7	4.9	5.5	3.5	
커뮤니케이션	-1.2	-2.5	-10.7	-3.6	1.6	0.0	-0.0	0.1	0.1	0.1	16.3	16.4	16.6	18.7	16.7	19.8	12.6	2.0	2.0	2.0	2.1	1.8	2.2	1.2	
유틸리티	-0.3	0.5	12.2	23.7	27.1	0.0	0.1	0.3	0.6	0.6	13.9	14.1	14.0	13.0	12.3	14.3	11.1	1.6	1.6	1.6	1.5	1.5	1.7	1.4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소재, 정보기술, 금융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자유소비재, 건강관리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소재, 금융, 정보기술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자유소비재, 유틸리티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에너지, 정보기술, 금융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산업재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건강관리, 에너지, 소재

글로벌 섹터별 트렌드_신흥국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1년간)	최소 (1년간)	
신흥국	0.9	0.4	8.1	25.5	28.9	0.0	0.1	0.5	0.9	0.9	13.4	13.4	13.5	13.4	12.2	14.0	10.9	1.9	1.9	1.9	1.8	1.6	1.9	1.3	
에너지	-0.9	-1.2	6.9	6.1	11.4	-0.0	-0.0	0.0	-1.5	-1.4	10.8	10.8	10.9	10.1	8.8	11.1	6.2	1.3	1.2	1.2	1.2	1.1	1.3	0.6	
소재	0.4	5.2	14.5	39.5	51.1	0.0	0.1	1.1	1.4	1.3	13.7	13.6	13.1	13.9	12.0	14.5	9.7	1.8	1.7	1.6	1.6	1.1	1.8	1.0	
산업재	2.1	0.6	8.1	27.3	32.5	0.0	-0.1	0.0	0.1	0.0	16.3	16.1	16.1	15.3	13.1	17.0	10.7	2.0	2.0	2.0	1.8	1.5	2.0	0.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정보기술, 금융, 소재
자유소비재	-0.6	-2.9	0.2	15.4	19.2	0.0	-0.1	-0.0	-0.3	-0.4	14.9	14.9	15.0	14.8	12.5	16.0	10.8	2.0	2.0	2.1	2.0	1.9	2.2	1.5	
필수소비재	-1.6	-1.5	-3.5	-1.5	3.7	0.0	-0.1	-0.1	-0.0	0.0	18.7	18.9	18.5	18.9	18.7	21.0	17.6	3.1	3.2	3.1	3.1	3.0	3.4	2.6	
건강관리	-1.4	-0.2	-6.6	13.5	14.9	-0.0	-0.2	-0.0	-0.2	-0.2	29.0	28.8	27.5	30.4	23.9	30.6	22.7	3.9	3.9	3.7	3.8	2.9	3.9	2.5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금융	-0.2	0.5	5.1	18.6	22.0	0.0	0.1	0.2	1.0	1.0	9.4	9.4	9.4	9.1	8.7	9.6	6.9	1.1	1.1	1.1	1.1	1.1	1.1	0.9	
정보기술	4.3	2.7	22.9	45.4	46.7	0.1	0.2	1.3	2.0	2.0	15.3	15.1	15.7	16.4	15.4	19.1	11.8	3.3	3.2	3.3	2.9	2.7	3.4	1.8	
커뮤니케이션	-1.0	-3.4	0.0	34.0	35.8	0.0	0.1	0.2	1.1	1.1	17.1	17.2	17.9	17.9	15.7	20.8	13.8	2.7	2.7	2.9	2.9	2.1	3.1	1.6	
유틸리티	-2.1	-2.2	2.9	6.4	9.1	0.0	0.2	0.3	0.8	0.6	11.5	11.6	11.9	11.5	11.8	15.2	9.8	1.3	1.3	1.3	1.1	1.3	1.4	1.0	
중국	-0.7	-2.4	-0.2	30.5	30.7	0.0	0.0	0.2	0.4	0.4	12.4	12.6	12.7	12.9	10.3	13.6	8.0	1.5	1.5	1.5	1.5	1.2	1.6	0.9	
에너지	-1.9	-2.2	7.2	16.3	14.9	-0.1	0.2	-0.0	-1.8	-1.7	10.5	10.4	10.7	9.5	7.6	11.0	5.2	0.9	1.0	1.0	0.9	0.8	1.0	0.6	
소재	2.9	4.3	22.7	94.6	104.5	0.0	0.0	0.7	1.7	1.7	14.3	13.8	13.7	13.1	9.9	15.2	8.1	2.1	2.0	1.9	1.7	1.2	2.1	0.9	
산업재	1.3	-0.8	3.5	18.6	16.9	-0.0	-0.2	-0.3	-1.3	-1.3	12.1	11.9	11.8	11.2	8.9	12.1	6.8	1.1	1.1	1.1	1.1	0.9	1.1	0.7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금융, 필수소비재, 소재
자유소비재	-1.4	-4.3	0.3	20.5	23.3	0.0	-0.2	-0.1	-0.5	-0.5	15.5	15.6	15.6	15.2	12.5	20.9	10.0	2.1	2.1	2.2	2.2	2.0	2.6	1.5	
필수소비재	-2.7	-2.4	-8.3	7.0	7.6	0.0	0.1	0.0	-0.1	-0.0	17.0	17.3	17.4	18.6	15.8	22.3	12.8	2.9	3.0	3.0	3.2	2.8	4.3	2.3	
건강관리	-1.1	1.0	-13.9	49.5	58.2	0.0	-0.2	-0.1	0.6	0.6	29.0	28.9	26.6	31.8	23.2	34.6	19.0	3.4	3.4	3.1	3.6	2.2	3.6	1.7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산업재, 자유소비재
금융	-0.9	-1.4	3.7	27.2	23.5	0.2	0.3	0.7	1.6	1.7	6.1	6.2	6.2	6.2	5.4	6.5	3.6	0.6	0.6	0.6	0.6	0.5	0.6	0.4	
정보기술	3.4	-1.3	-9.3	38.2	30.0	0.0	-0.0	0.0	0.8	0.7	24.3	23.8	24.5	27.4	22.2	30.3	11.7	2.9	2.9	3.3	3.7	2.6	4.0	1.3	
커뮤니케이션	-1.4	-4.0	-1.7	44.9	45.3	0.0	0.2	0.3	1.0	1.0	16.9	17.0	17.9	18.2	14.3	23.3	11.3	2.7	2.7	3.0	3.0	1.9	3.2	1.3	
유틸리티	-1.3	-1.6	1.3	8.4	3.5	0.0	0.0	0.2	-0.8	-0.8	10.2	10.2	10.3	10.1	8.8	10.4	6.5	1.0	1.0	1.0	1.0	1.0	1.1	0.7	
인도	-1.2	0.9	3.9	2.3	6.8	0.0	0.0	0.1	0.3	0.3	21.8	22.0	21.7	21.3	23.0	24.5	18.4	3.2	3.2	3.2	3.3	3.6	4.0	2.8	
에너지	-0.4	2.2	10.3	12.2	20.1	0.0	0.0	0.1	0.3	0.3	15.2	15.2	14.9	14.0	14.1	24.8	12.6	1.8	1.8	1.7	1.6	1.6	2.9	1.4	
소재	-1.5	-1.8	-0.4	5.5	13.6	0.0	0.1	0.4	0.6	0.7	19.5	19.7	20.0	21.0	20.6	22.6	15.2	2.8	2.8	2.8	2.8	2.8	3.1	2.1	
산업재	-3.9	-1.9	2.7	-1.2	4.9	-0.0	0.1	0.1	0.3	0.3	32.4	33.6	33.8	33.0	37.3	42.0	25.4	6.6	6.9	6.6	6.5	7.9	8.8	3.9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재, 자유소비재
자유소비재	-2.2	0.2	-3.1	2.7	6.6	0.0	0.2	0.3	0.4	0.4	29.1	30.0	30.5	32.6	32.1	35.0	24.1	5.3	5.4	5.4	6.0	6.6	7.0	3.7	
필수소비재	-1.3	-1.1	-3.9	-3.0	0.3	0.0	-0.3	0.1	0.4	0.4	42.6	42.6	38.3	45.3	50.3	56.6	37.7	9.3	9.3	9.3	9.8	9.8	12.1	8.2	
건강관리	-1.5	0.1	1.3	-0.9	-4.9	0.0	-0.0	-0.0	-1.0	-1.1	31.4	31.6	30.6	30.8	23.7	34.2	22.2	4.7	4.7	4.6	4.6	5.1	5.5	3.3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산업재, 필수소비재, 금융
금융	0.2	1.3	6.7	10.7	16.3	0.0	0.0	-0.1	0.4	0.4	17.5	17.3	17.2	15.9	16.7	20.5	14.7	2.4	2.3	2.3	2.5	2.5	3.3	2.2	
정보기술	2.7	9.0	11.5	-17.4	-14.4	0.0	0.1	0.1	0.4	0.3	23.3	22.8	21.7	22.2	30.8	31.6	19.7	6.3	6.1	5.8	6.2	8.8	9.7	5.8	
커뮤니케이션	-0.7	3.7	11.6	22.4	23.6	0.0	-0.2	0.0	1.4	1.3	40.7	41.5	36.9	37.3	75.6	82.9	27.6	8.4	8.9	8.7	8.4	13.8	19.7	3.8	
유틸리티	-2.9	-4.2	-2.9	-15.7	-8.2	0.0	0.0	-0.1	0.4	0.3	15.0	15.4	15.7	15.1	18.9	21.9	11.4	1.9	1.9	2.0	2.0	2.6	3.1	1.5	
브라질	-2.5	1.3	10.4	29.2	41.2	-0.1	-0.0	0.3	0.4	0.5	9.7	9.9	9.4	9.0	7.8	10.1	6.4	1.6	1.6	1.5	1.4	1.3	1.7	0.7	
에너지	-2.7	-3.6	2.4	-7.8	0.4	-0.2	-0.5	0.1	-4.7	-4.4	5.7	5.7	5.7	5.6	5.0	6.0	3.1	0.9	0.7	0.8	0.8	0.9	4.6	0.2	
소재	0.1	4.7	17.8	22.1	31.0	-0.2	-0.3	0.5	-0.1	-0.1	7.6	7.3	6.9	6.6	6.3	7.7	5.0	1.1	1.1	1.1	1.0	1.0	1.8	0.8	
산업재	-1.5	2.4	16.4	21.2	30.2	-0.0	0.0	0.2	1.0	1.0	18.7	18.9	18.3	16.5	19.0	26.1	15.4	2.8	2.7	2.5	1.7	2.2	3.7	1.4	• EPS 증가율 상위 섹터 3개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유틸리티
자유소비재	-5.4	0.0	3.2	40.0	61.4	0.1	0.4	0.8	-0.3	0.3	10.9	11.4	11.2	11.1	7.4	17.4	6.6	1.3	1.4	1.3	1.2	1.0	1.9	0.8	
필수소비재	-4.3	4.3	8.2	0.7	17.1	-0.1	-0.5	-1.3	0.4	0.5	14.6	14.9	13.0	11.4	15.4	17.2	10.7	2.5	2.6	2.6	2.2	2.3	2.8	1.7	
건강관리	-6.2	-7.7	13.9	73.7	91.3	-0.1	0.2	0.5	0.7	0.9	17.9	18.8	19.9	17.0	11.6	28.1	10.8	3.1	3.3	3.4	2.9	0.8	3.4	0.7	• EPS 증가율 하위 섹터 3개 →에너지, 소재, 필수소비재
금융	-5.6	1.8	8.4	46.9	60.9	-0.0	0.3	0.6	1.8	1.9	9.9	10.4	9.9	9.7	8.1	10.4	6.1	2.0	2.1	2.0	1.9	1.6	2.2	1.1	
정보기술	1.4	-1.2	5.6	85.1	92.8	-0.1	0.0	0.2	1.4	1.4	25.1	23.8	24.9	24.0	20.4	26.6	18.7	4.7	4.6	4.7	4.4	3.1	5.0	2.3	
커뮤니케이션	-5.4	-3.5	1.3	54.3	74.1	0.0	0.2	0.5	2.2	2.3	12.9	13.7	13.7	13.6	11.5	15.4	10.4	1.9	2.0	1.9	1.9	1.3	2.0	0.9	
유틸리티	-4.6	1.5	18.6	62.5	74.8	0.0	-0.0	0.6	1.3	1.3	13.7	14.2	13.3	12.4	10.0	14.5	8.6	1.6	1.6	1.5	1.3	1.1	1.7	0.9	

글로벌 스타일별 추이

(단위 : %, 밸류에이션 지표 제외)

	종가추이					EPS					PER(12M fwd)							PBR(12M fwd)							Comment
	1W (%)	1M (%)	3M (%)	1Y (%)	YTD (%)	1W (%)	1M (%)	3M (%)	1Y (%)	YTD (%)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현재	1W전	1M전	3M전	1Y 전	최대 (3년간)	최소 (3년간)	
세계	0.4	1.9	4.8	14.3	18.8	0.0	0.1	0.2	0.6	0.6	20.2	20.1	20.1	20.1	19.8	20.7	15.0	3.5	3.5	3.5	3.4	3.3	3.5	2.4	
대형주	0.4	1.9	5.5	15.4	19.6	0.0	0.1	0.2	0.6	0.6	20.8	20.7	20.7	20.6	20.3	21.4	15.2	3.9	3.8	3.8	3.8	3.6	3.9	2.6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소형주
중형주	0.8	1.3	0.8	8.0	14.6	0.0	0.0	0.1	0.5	0.5	17.3	17.2	17.1	17.4	17.5	17.9	13.9	2.3	2.3	2.2	2.2	2.2	2.3	1.7	
소형주	1.2	3.1	2.5	10.4	17.2	0.0	0.2	0.3	0.7	0.7	17.0	16.9	16.9	17.5	17.5	17.8	13.2	1.7	1.6	1.6	1.6	1.6	1.7	1.1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성장
성장	0.4	1.7	6.3	17.3	21.0	0.0	0.0	0.2	0.6	0.6	27.8	27.8	27.4	27.5	28.5	28.8	20.8	7.0	7.0	7.0	6.8	7.0	7.2	4.6	
가치	0.5	2.0	3.1	11.0	16.4	0.0	-0.0	0.0	0.3	0.3	15.9	15.8	15.4	15.4	14.9	15.9	11.7	2.3	2.3	2.2	2.2	2.1	2.3	1.6	
미국	0.6	1.9	5.3	12.6	17.0	0.0	0.1	0.2	0.5	0.5	22.3	22.2	22.2	22.2	22.3	22.9	16.5	4.6	4.6	4.6	4.6	4.4	4.7	3.3	
대형주	0.2	2.0	6.0	14.2	18.2	0.0	0.1	0.2	0.6	0.5	22.9	22.8	22.8	22.8	22.7	23.7	16.7	5.1	5.0	5.0	5.0	4.8	5.2	3.5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소형주
중형주	0.9	1.1	0.7	1.8	9.1	0.0	0.0	0.1	0.4	0.4	18.9	18.7	18.6	19.1	19.8	20.1	14.9	2.9	2.9	2.8	2.9	2.9	3.0	2.2	
소형주	1.5	3.3	3.6	5.2	13.0	0.0	0.2	0.5	0.8	0.8	18.4	18.2	18.5	19.3	20.3	21.1	14.8	1.9	1.9	2.0	1.9	1.9	2.1	1.4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성장
성장	0.1	2.0	7.6	19.2	22.2	0.0	-0.0	0.2	0.6	0.5	30.6	30.7	29.8	30.0	30.9	31.6	21.4	10.3	10.3	9.7	9.6	9.7	10.3	5.8	
가치	0.6	1.7	2.7	5.4	11.2	0.0	-0.0	0.0	0.2	0.2	17.5	17.3	17.0	17.1	17.0	17.5	13.1	3.0	3.0	2.8	2.8	2.8	3.0	2.1	
일본	1.4	2.2	9.2	23.8	21.2	0.0	0.2	0.4	0.7	0.7	16.7	16.6	17.1	16.3	15.4	17.4	12.3	1.7	1.7	1.7	1.6	1.4	1.7	1.1	
대형주	1.4	1.7	10.2	24.4	21.4	0.0	0.3	0.5	0.9	0.8	17.0	16.8	17.6	16.7	16.0	18.0	12.3	1.8	1.8	1.8	1.7	1.5	1.9	1.2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중형주
중형주	1.4	3.7	6.4	22.5	20.9	0.0	0.1	0.2	0.3	0.4	16.1	16.0	15.8	15.5	13.8	16.3	11.4	1.4	1.4	1.3	1.3	1.1	1.4	1.0	
소형주	0.9	1.9	-0.3	21.4	24.7	0.0	-0.2	-0.2	0.5	0.5	15.5	15.4	14.8	15.0	13.7	15.7	11.6	1.2	1.2	1.2	1.2	1.1	1.2	0.9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성장
성장	1.7	-0.1	10.3	17.5	16.9	0.0	0.1	0.2	0.4	0.4	23.2	22.9	23.7	22.0	21.9	24.3	16.4	2.9	2.9	3.0	2.8	2.6	3.1	1.9	
가치	1.1	4.6	8.0	30.2	25.4	0.0	0.3	0.5	1.1	1.1	13.1	13.1	13.2	13.0	12.0	13.6	9.6	1.2	1.2	1.1	1.1	1.0	1.2	0.8	
유럽	0.6	2.3	4.8	11.0	13.8	0.0	0.0	0.2	0.2	0.1	15.1	15.0	14.8	14.8	14.0	15.4	11.6	2.1	2.1	2.1	2.1	1.9	2.2	1.6	
대형주	0.5	2.5	5.2	10.3	13.2	0.0	0.0	0.2	0.1	0.1	15.3	15.2	15.0	14.9	14.1	15.5	11.6	2.2	2.2	2.2	2.2	2.0	2.3	1.7	• EPS 증가율 상위 스타일 →소형주
중형주	0.4	1.4	2.6	14.4	16.8	-0.0	0.1	0.3	0.6	0.5	14.2	14.1	14.1	14.4	13.6	14.9	12.1	1.8	1.8	1.7	1.7	1.6	1.8	1.4	
소형주	0.7	3.6	0.4	19.5	24.5	0.0	0.1	0.2	0.7	0.7	13.6	13.5	13.3	13.9	12.7	14.3	10.5	1.5	1.5	1.4	1.4	1.4	1.5	0.4	• EPS 증가율 하위 스타일 →중형주
성장	1.1	2.0	3.2	2.3	6.0	0.0	0.0	0.1	0.4	0.3	21.2	20.9	20.7	20.9	22.4	25.0	18.8	3.7	3.7	3.8	3.8	4.1	4.4	3.4	
가치	0.1	2.6	6.3	20.1	21.9	-0.0	0.1	0.2	0.2	0.2	11.8	11.9	11.6	11.5	10.2	12.1	8.5	1.5	1.5	1.5	1.4	1.3	1.5	1.0	

Global Asset Fund Flow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Weekly Flows (ETF+non ETF)		ETF Only		% of Asset (ETF+non ETF)			Comment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최근1주	10주평균	Assets	
주식	선진국	Global	3,821.34	4,358.69	4,127.15	7,623.15	0.06	0.07	6,564,767	• 지난주 글로벌 자금 흐름은 선진국, 신흥국 주식 위주 유입 흐름 전개 •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7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3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선진국 채권형 펀드는 8주 연속 유입세 지속 • 선진국 채권형 펀드는 3주 연속 유입세 지속
		NorthAm	1,218.49	10,685.51	11,321.28	20,905.52	0.01	0.07	14,872,424	
		W.Europe	1,218.71	257.96	1,454.52	1,315.39	0.06	0.01	1,909,520	
		Asia Pacific	726.08	231.51	850.59	261.47	0.07	0.02	1,111,853	
		선진국 합	6,984.63	15,533.67	17,753.53	30,105.53	0.03	0.06	24,458,563	
	신흥국	GEM	2,480.02	1,363.94	1,788.77	1,745.60	0.23	0.13	1,076,441	
		Asia ex-JP	(1,357.89)	4,471.42	(992.50)	5,001.52	(0.10)	0.33	1,357,104	
		EMEA	92.72	36.15	55.48	21.41	0.22	0.09	41,893	
		LatAm	101.67	138.26	6.08	114.41	0.22	0.31	47,813	
		신흥국 합	1,316.52	6,009.77	857.83	6,882.95	0.05	0.24	2,523,250	
채권	선진국	Global	2,613.66	1,835.37	733.56	1,105.44	0.21	0.15	1,253,111	
		NorthAm	8,603.89	11,958.72	5,242.36	10,818.22	0.16	0.23	5,298,087	
		W.Europe	1,803.80	2,387.74	658.60	1,279.19	0.09	0.13	1,916,864	
		Asia Pacific	(3.92)	150.78	92.70	134.78	(0.01)	0.22	69,794	
		선진국 합	13,017.43	16,332.61	6,727.23	13,337.63	0.15	0.19	8,537,856	
	신흥국	GEM	1,461.95	807.76	910.24	406.28	0.41	0.23	357,985	
		Asia ex-JP	609.14	317.25	742.85	513.16	0.25	0.13	241,633	
		EMEA	185.45	126.61	3.69	0.86	0.46	0.33	40,607	
		LatAm	109.89	80.49	126.11	58.58	0.99	0.75	11,360	
		신흥국 합	2,366.43	1,332.11	1,782.89	978.88	0.37	0.21	651,585	

자료: EPFR, 하나증권

글로벌 ETF 시장의 지역별 자금 흐름 점검

글로벌 수급: 북미 지역 ETF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ETF 시장의 자금 유입 기조가 지속

- 북미 주식형 ETF 시장으로 2주 연속 +200억달러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북미 채권형 ETF 시장에는 +144.5억달러의 투자 자금이 유입. 글로벌 선진국과 유럽 주식형 ETF 시장에 자금 유입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선진 아시아 주식형 ETF 시장에서는 2주만에 다시 자금이 유출
- 신흥국 ETF 시장의 경우 신흥 아시아 지역 주식형 ETF 시장으로 3주래 최대 규모의 매수세가 유입된 한편, 남미 주식형 ETF 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금 유입 기조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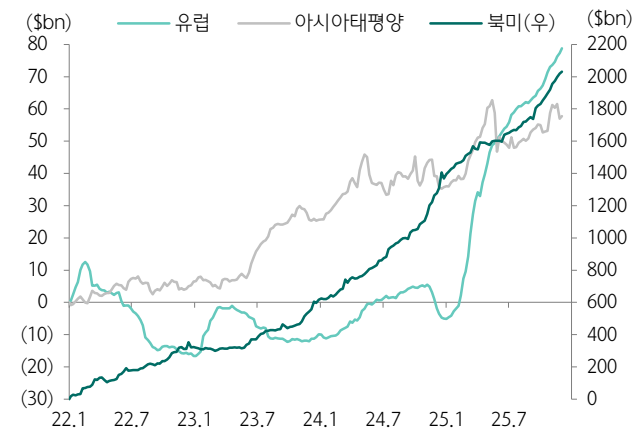
글로벌 ETF 주요 지역별 자금 흐름

(단위: 백만 달러)

자산	지역 구분	세부 지역	Net Flows ($MM)				총자산	유입강도
			1주전	2주전	3주전	4주전	($MM)	(%)
주식 ETF	선진시장	글로벌	4,127	5,826	5,246	8,267	2,319,304	0.18
		북미	11,321	21,764	24,458	16,763	9,596,810	0.12
		서유럽	1,455	1,143	1,508	1,050	547,323	0.27
		아시아 태평양	851	(4,579)	1,139	(833)	829,662	0.10
	선진시장 Total		**17,754**	**24,154**	**32,351**	**25,247**	**13,293,099**	**0.13**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1,789	2,703	3,132	2,647	516,565	0.35
		신흥아시아	(992)	8,605	6,401	3,333	1,037,504	(0.10)
		EMEA	55	27	23	(7)	13,699	0.41
		남미	6	(285)	485	450	36,654	0.02
	신흥시장 Total		**858**	**11,050**	**10,041**	**6,422**	**1,604,422**	**0.05**
	주식 ETF Total		**18,611**	**35,204**	**42,392**	**31,669**	**14,897,521**	**0.13**
권 ETF	선진시장	글로벌	734	1,986	954	1,289	187,814	0.39
		북미	5,242	14,447	9,515	14,503	2,470,417	0.21
		서유럽	659	(202)	668	1,151	309,171	0.22
		아시아 태평양	93	170	237	186	19,076	0.49
	선진시장 Total		**6,727**	**16,401**	**11,374**	**17,129**	**2,986,478**	**0.23**
	신흥시장	글로벌 신흥	910	858	268	119	73,206	1.26
		신흥아시아	743	536	852	(112)	133,380	0.56
		EMEA	4	1	(6)	(0)	1,251	0.30
		남미	126	36	54	26	2,823	4.73
	신흥시장 Total		**1,783**	**1,431**	**1,168**	**33**	**210,660**	**0.85**
	채권 ETF Total		**8,510**	**17,832**	**12,542**	**17,162**	**3,197,138**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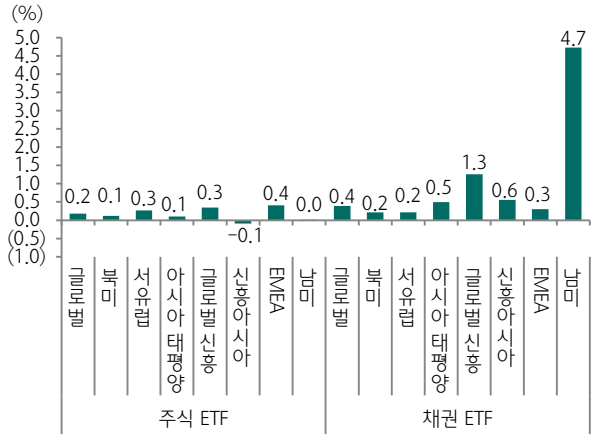
주1. 기준일: 25.12.08
주2. 유입강도(%)는 주간 유입액/ 전주말 총자산 x100
자료: EPFR, 하나증권

2022년 이후 지역별 누적자산 유입현황



자료: EPFR, 하나증권

주식 & 채권 ETF 지역별 주간 자금 흐름 유입 강도



자료: EPFR, 하나증권

주간 추천 글로벌 ETF 리스트

Investment Point: FOMC, 펀더멘털 경계 전망. 단기 수급 변화 염두, 중장기 전략 유효. CHAT, SMH, ZAP, XLE, XBI, XLV, QDF 활용

-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 블랙아웃 기간에 진입. 셧다운 여파로 뒤늦게 경제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정상 일정 하에서 FOMC 전에 확인되어야 했던 10월 주요 지표들과 11월 고용보고서는 최소 12월 중순에나 살펴볼 수 있을 예정. 최근의 상황들은 여전히 민간 데이터들을 통해 가늠해 봐야하는 시기. 금주에는 11월 ISM 제조업 보고서와 서비스업 보고서,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데이터가 확인될 예정
- 경제지표 확인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 부담과 펀더멘털 퀄리티 훼손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 주거 부문이 근원 물가를, 에너지가 헤드라인 물가를 누르고 있으나, 관세의 가격 전가 영향도 꾸준히 확산. 할인행사에 민감한 가계 소비와 경제활동 참가인구 증가 추세는 소득의 불안정성과 맞닿아 있는 현상.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은 점차 펀더멘털 퀄리티 쪽에 놓이게 될 전망
- 구글의 Gemini 3.0과 TPU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AI 버블론 관련 우려가 일부 완화된 상황. ETF 포트폴리오에서도 세부 조정이 진행될 필요. 중장기 관점에서 SMH, ZAP, URA/NLR 등 병목현상 발생 영역들의 우선순위 유지하면서, 업종 분류상 반도체 섹터 ETF에 편입되지 않는 Alphabet은 MAGS나 CHAT 등의 ETF들을 활용해 보완. 연말 수급 변수와 펀더멘털 약화 기조 하에 기술 기반의 수요 창출이 가능한 XBI, 그리고 XLV, QDF, BTAL와 같은 ETF들도 시야에 놓아두는 투자전략 제시

분류	종목코드 (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절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주식형	SMH (VanEck Semiconductor ETF)	글로벌 반도체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2025년 11월 24일	339.12 364.42	7.46% 3.55%
주식형	MADE (iShares US Manufacturing ETF)	미국 제조업 기업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2025년 10월 27일	30.66 31.24	1.89% 0.75%
주식형	FTLS (First Trust Long/Short Equity ETF)	롱숏전략	• FTLS는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Long/Short Position을 구축. 펀더멘털 매력 높은 기업을 매수, 낮은 기업을 매도하는 구조 • EQR(Earnings Quality Rank) 모델을 활용하여 편입 종목을 선정에 재무 건전성, 수익 안정성, 회계 투명성 등의 기준을 반영. 변동성 국면에서 방어 성향 부각	2025년 8월 1일	66.16 71.31	7.78% 0.65%
주식형	PAVE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미국 인프라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2025년 11월 24일	46.98 48.47	3.17% -0.74%
주식형	SHLD (Global X Defense Tech ETF)	미국 방산 기술 주식	•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2025년 4월 25일	50.62 62.83	24.12% -4.40%
주식형	HACK (Amplify Cybersecurity ETF)	미국 사이버 보안주	• 미국에 상장된 사이버 보안 테마 ETF. 사이버보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을 편입. 대형주가 4분의 3 이상, 미국 기업이 90% 이상 비중을 차지 • 사이버 보안 산업은 AI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는 2030년 이후 5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2025년 4월 4일	64.68 84.28	30.30% 8.63%
주식형	QGRO (American Century US Quality Growth)	미국 퀄리티 성장 주식	•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2024년 1월 5일	73.83 115.20	56.03% 17.61%
채권형	VCIT (Vanguard Intermediate-Term Corporate Bond ETF)	미국 중기 회사채	• 5년~10년 만기의 투자등급 회사채로 구성된 중기 회사채 ETF •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임박. 연내 금리인하 폭에 대한 고민이 채권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 존재하나, 연착륙 기대 동반되며 회사채 스프레드 지지 전망	2024년 8월 30일	82.74 83.94	1.45% -19.80%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 주식은 D-1일, 중국/일본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주3) 상대수익률은 벤치마크(BM)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주식형 BM은 MSCI AC World Index, 채권형 BM은 Bloomberg Barclays Global Aggregate Bond Index TR, 리츠 BM은 Bloomberg REIT Index, 대체투자 BM은 S&P GSCI Index 적용

미국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리뷰: 금리 인하 기대감의 금융주, AI 낙관론 기대감의 IT

- 리뷰 코멘트: 신고가 개수 93개 기록하고 S&P 500 +0.31% 강보합 마감. AI 전망 낙관론/우려 공존하는 가운데 QT 종료,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융, IT 업종 중심의 신고가 주도
- 전망 코멘트: 오는 10일 미국 FOMC로 증시 불확실성 증가 예상되나 11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서 AI 낙관론 확인 시 기존 IT 종목의 신고가 재돌파 전망

미국 신고가/특징주 리뷰

Citigroup (C.US)	• 골드만삭스 금융 서비스 컨퍼런스에서 시장 안정 언급, 금리 인하 기대, 레포금리 안정 등으로 금융주 강세 • 연준의 SLR 규제 완화로 실적 개선 기대감 상승 • 연준의 레포 금리가 하락 안정 보이는 것도 긍정적
Analog Devices (ADI.US)	• 피지컬 AI 부각받으며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신고가 돌파 • 센서, 연결성, 통신, 모션 제어, 전력 관리 등 지능형 로봇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 보유 • 로봇의 핵심 구동 기술인 모션 제어 솔루션인 '트라이나믹 모터 컨트롤러' 보유
Caterpillar (CAT.US)	• AI 수요 증가로 전력 발전 관련주 재부각 받으며 신고가 • 발전 사업 부문인 Solar Turbines 재부각 • 왕복엔진과 터빈을 포함한 제품들을 데이터센터에서 백업 전력뿐 아니라 주전력 솔루션으로도 점차 활용
Warner Bros Discovery (WBD.US)	• 넷플릭스가 827억 달러 규모로 인수 발표 소식에 신고가 • 주당 27.75 달러에 매입할 예정으로 영화, 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 등 사업 인수 예정 • 12~18개월 내 마무리 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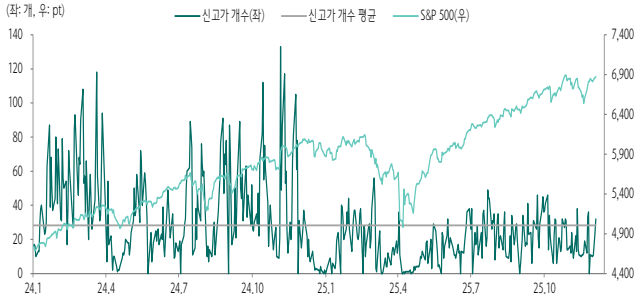
미국 주요 섹터 리뷰

금융	• Citigroup, Bank of America,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등 신고가 • 매크로 환경 개선 속 금융주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 기대감 86.2% 수준
IT	• Applied Materials, Analog Devices, Apple, Intel 등 신고가 • 반도체 투자 확대로 장비주인 Applied Materials 신고가 돌파 • 호실적 모멘텀과 피지컬 AI 수혜주로 Analog Devices 신고가

미국 신고가 기대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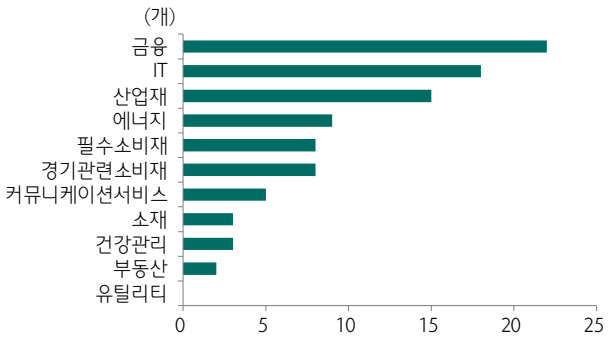
Albemarle (ALB.US)	•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리튬 수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구권의 리튬 생산 능력 확대 투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리튬 수급 불균형 가능성 부각
Las Vegas Sands (LVS.US)	• 11월 마카오 총 게임 수익 211억 마카오 파타카(MOP) 기록 • 11월 누적 2,265억 MOP으로 전년대비 8.6% 증가 • 12월에는 15%의 성장세 전망
Alphabet (GOOGL.US)	• 구글 클라우드는 백로그 1,550억 달러에 달해 • Gemini 3.0 공개 후 호평과 트래픽 점유율 전년대비 2배 증가 • 7세대 TPU 수요 확대, 외부 판매 추진으로 고객사 확대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AI 낙관/우려 공존하며 강보합



주: 연간 미국 증시, 신고가 개수 추이(12/01~12/05)
자료: CIQ, 하나증권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융주 중심의 신고가 주도



주: 주간 미국 증시 섹터별 신고가 현황(12/01~12/05)
자료: CIQ, 하나증권

미국 52주 신고가: 신규 & 기존

신규 신고가 출몰	
Ulta Beauty (ULTA.US)	• 3QFY25 매출액 28.52억 달러(YoY +12.9%), EPS 5.14 달러, Comparable Sales +6.3% 기록 • FY2025 가이던스 매출액 123억 달러, Comparable Sales 4.4~4.7%, EPS 25.20~25.50 달러로 상향 조정 • 신제품 라인업, 개선된 매장 및 디지털 경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매출, 시장 점유율 상승
Intel (INTC.US)	• Intel이 애플의 첨단 공정 공급업체 될 가능성 부각되며 2027년 가장 빠른 시점에 최저가 M 프로세서 출하 예상 • 이전에 INTC과 NDA 체결하고 첨단 공정 18AP의 PDK 0.9.1GA 확보. 현재 주요 시뮬레이션 및 연구 프로젝트 진행 중 • 2026년, 2027년 최저 사양 M 프로세서 배송량 1500만~2000만대 예상
EQT (EQT.US)	• 미국 천연가스 가격 $5/mmbtu로 3년래 최대 기록 • LNG 수출 사상 최대 기록. 2025년 10월 수출량 1,010만 톤, 11월 예상치 1,070만 톤으로 사상 최대 예쌍 • 유럽의 겨울 난방 수요와 낮은 재고 등 영향으로 미국 LNG 의존도 심화
기존 신고가 지속	
Analog Devices (ADI.US)	• 피지컬 AI 부각받으며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신고가 돌파 • 센서, 연결성, 통신, 모션 제어, 전력 관리 등 지능형 로봇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 보유 • 로봇의 핵심 구동 기술인 모션 제어 솔루션인 '트라이나믹 모터 컨트롤러' 보유
Ross Stores (ROST.US)	• 지난 20일 호실적 발표 이후 급등 후 신고가 지속 • 3QFY25 매출액 56억 달러, EPS 1.58 달러, 동일 점포 매출 +7%로 컨센서스 상회 • BTS 시즌에 우수한 성과 거두고 강한 추세 분기 내내 지속
Warner Bros Discovery (WBD.US)	• 넷플릭스가 827억 달러 규모로 인수 발표 소식에 신고가 • 주당 27.75 달러에 매입할 예정으로 영화, 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 등 사업 인수 예정 • 12~18개월 내 마무리 될 예정

주요 신고가 주가 추이

	업종	시가총액 (조원)	연내 신고가 돌파일	돌파 이후 수익률(%)	신고가 이후 최대 낙폭(%)	저점 이후 수익률(%)	YTD (%)
S&P 500 지수	-	-	2025-02-19	+11.4	-18.9	+37.4	+16.4
엔비디아 (NVDA.US)	IT	6,627	2025-01-07	+32.4	-36.8	+96.7	+38.2
메타 (META.US)	커뮤니케이션	2,470	2025-01-24	+3.0	-34.2	+37.6	+13.9
월마트 (WMT.US)	필수소비재	1,330	2025-01-27	+21.6	-22.1	+49.9	+31.5
JP모건 (JPM.US)	금융	1,273	2025-01-17	+16.6	-24.8	+38.8	+25.7
넷플릭스 (NFLX.US)	커뮤니케이션	650	2025-02-03	-1.1	-19.1	+16.8	+8.6
팔란티어 (PLTR)	IT	635	2025-01-31	+120.0	-40.6	+179.3	+140.0
GE 버노바 (GEV.US)	산업재	248	2025-01-06	+67.5	-38.2	+130.2	+89.1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CEG.US)	유틸리티	164	2025-01-24	+2.9	-50.7	+109.2	+59.9
로빈후드 (HOOD.US)	금융	180	2025-01-15	+199.5	-47.6	+411.7	+266.2
카디널 헬스 (CAH.US)	건강관리	69	2025-01-16	+56.6	-9.9	+68.5	+68.2

자료: CIQ, 하나증권

투자유망종목

Investment Point: 12월 FOMC에서 발표되는 점도표, 경제전망에 대한 관심 높을 전망. 연준 매파적 인하에 대한 경계감 존재

- 글로벌 증시는 12월 FOMC와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 보이며 보합권 등락. 올해 마지막 FOMC 앞두고 연준의 매파적 인하에 대한 우려 존재. 내년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하 경로 불확실성 등으로 미 국채금리 상승하며 증시 상승은 제한된 모습. 시장의 관심은 내년 주도주 찾기로 넘어가면서 1월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에 대한 관심 높아질 전망. AI 인프라 확장되는 국면 속에서 AI 모멘텀 보유하면서 이익 성장 기대감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 유효. 투자유망종목은 브로드컴(AVGO.US) 신규 편입

  * 차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 브로드컴(12/11)

종목	종목코드	국가	업종	시가총액 (조원)	편입일	편입 기준가	전일 종가	절대 수익률	상대 수익률
엔비디아	NVDA.US	미국	정보기술	6,633	7/14	164.07	185.55	13.09%	3.93%
애플	AAPL.US	미국	정보기술	6,039	12/2	283.10	277.89	-1.84%	-2.53%
알파벳	GOOGL.US	미국	커뮤니케이션	3,073	10/28	269.27	313.72	16.51%	16.95%
브로드컴	AVOG.US	미국	정보기술	2,786	12/9	401.10	신규	-	-
제이피 모건	JPM.US	미국	금융	1,275	6/30	289.91	315.21	8.73%	-1.09%
팔란티어	PLTR.US	미국	정보기술	635	8/4	160.66	181.49	12.97%	4.39%
캐터필러	CAT.US	미국	산업재	410	11/4	570.59	596.50	4.54%	4.5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미국	정보기술	408	9/30	163.90	246.92	50.65%	47.85%
알리바바	9988.HK	중국	자유소비재	553	9/16	153.50	150.70	-1.82%	-5.04%
쓰위안전기	002028.CH	중국	산업재	25	11/4	142.85	156.70	9.70%	9.68%

주1) 기준가는 편입일 전일 종가(미국/유럽 주식은 D-1일. 중국/홍콩 주식은 D일), 주간 단위로 종목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주2)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미국(USD), 유럽(EUR), 중국(RMB), 홍콩(HKD)
주3) 상대수익률은 각 종목별 편입일 기준 벤치마크(BM) 지수 대비 수익률을 의미. BM은 MSCI AC World Index

✓ **글로벌 투자유망종목 제외종목: 일라이 릴리 (종목 교체, 11/18~12/8, -2.36%)**

엔비디아 (NVDA.US)

Graphics, Compute & Networking의 두 부문을 운영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회사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6,633
편입일	7월 14일
EPS증감율(2026E)	+64.84%
PER(2026E)	56.00
PBR(2026E)	39.10

- Investment point
  2QFY26 매출액 467.4억 달러(YoY +56%), EPS 1.05 달러(YoY +54%)로 컨센서스 상회
  현재 지정학적 이슈 해결 중으로 3분기 전망치에서 H20 매출 제외됐으나 해소될 경우 20억~50억 달러 매출 인식 가능
  추론형 에이전트 AI 등장으로 필요 연산량 과거대비 100배, 1000배 이상 증가 예상
- Risk
  빅테크의 CapEx 투자 둔화 및 AI 수익화 부진

애플 (AAPL.US)

iPhone, Mac, iPad 등 하드웨어와 iOS, iPadOS, macOS 소프트웨어 설계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6,039
편입일	12월 2일
EPS증감율(2026E)	+22.70%
PER(2026E)	34.40
PBR(2026E)	55.90

- Investment point
  4QFY25 매출액 1,025억 달러(YoY +8%), EPS 1.85 달러(YoY +91%) 기록
  2025년 9월 아이폰 17 시리즈 판매량 1,053만대로 16 시리즈 동기간 판매량 대비 21% 상회
  2026년 개선된 Siri 정식 출시 예정으로 향후 온디바이스 AI 기능 강화 기대
- Risk
  AI 기능 부진에 따른 시장 점유율 하락

알파벳 (GOOGL.US)

AI 포트폴리오 확대로 주력 상품 & 서비스 수요 강세

국가	미국
업종	커뮤니케이션
시가총액(조원)	3,073
편입일	10월 28일
EPS증감율(2026E)	+34.51%
PER(2026E)	25.20
PBR(2026E)	7.60

- Investment point
  3QFY25 매출액 1,023.5억 달러(YoY +16%), EPS 2.87 달러(YoY +35%)로 컨센서스 상회
  FY2025 CapEx 910억~930억 달러 전망(이전치 850억 달러) 전망
  AI 기반 검색으로 쿼리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광고 매출 가속화 기대
- Risk
  광고 시장 둔화 및 AI CapEx 감소로 AI 모멘텀 부진

브로드컴 (AVGO.US)

반도체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 솔루션 설계, 개발 및 공급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2,786
편입일	12월 9일
EPS증감율(2026E)	+228.68%
PER(2026E)	37.80
PBR(2026E)	12.90

- Investment point
  4QFY25 매출액 174.6억 달러(YoY +24.2%), EPS 1.87 달러(YoY +31.6%) 전망
  마이크로소프트와 ASIC 칩 공동 설계 논의로 고객사 확대 기대감
  미국 빅테크 AI CapEx 전망 유지하며 향후 AI 투자 지속 전망
- Risk
  AI 투자 감소에 따른 AI 매출 성장 둔화

제이피 모건 (JPM.US)

월가 최대의 투자 은행이자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

국가	미국
업종	금융
시가총액(조원)	1,275
편입일	6월 30일
EPS증감율(2026E)	+12.35%
PER(2026E)	13.50
PBR(2026E)	2.10

- Investment point
  3QFY25 매출액 471억 달러(YoY +9%), 순이익 144억 달러(YoY +12%), EPS 5.07 달러 기록
  NIM 2.45%, 순이자이익(NII) 241억 달러(YoY +2%), CET1 14.8%, ROTCE 20% 기록
  4QFY25 가이던스 순이자이익(마켓 제외) 235억 달러, 순이자이익 250억 달러 전망
- Risk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 폭 증가로 NIM 감소폭 확대

팔란티어 (PLTR.US)

데이터 분석 및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온톨로리 기술 보유 기업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635
편입일	8월 4일
EPS증감율(2026E)	+16.04%
PER(2026E)	215.40
PBR(2026E)	39.30

- Investment point

3QFY25 매출액 11.81억 달러(YoY +63%), EPS 0.21 달러, 조정 EBITDA 6.07억 달러, Rule of 40: 114%
FY25 가이던스 매출액 43.96~44.00억 달러, 미국 커머셜 매출: 최대 14.33억 달러 가이던스 상향 조정
상위 20개 고객의 평균 매출이 빠르게 증가 중(CAGR: +22%, 2024년 기준 +17% 수준)

- Risk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캐터필러 (CAT.US)

건설 및 광산 장비, 오프로드 엔진, 산업용 가스터빈 등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410
편입일	11월 4일
EPS증감율(2026E)	-9.51%
PER(2026E)	18.0
PBR(2026E)	9.60

- Investment point

3QFY25 매출액 176억 달러(YoY +10%), EPS 4.95 달러로 컨센서스 상회
Backlog: 398억 달러. 주로 E&T부문 수주 증가, 특히 발전용 증심
데이터센터 프라임 파워: 하이퍼스케일러, 콜로케이션 업체 수요 견조. Titan 350 터빈 주문 호조

- Risk

AI 투자 및 리쇼어링 수요 감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US)

DRAM, NAND 등 메모리 제품 포트폴리오 사업 영위

국가	미국
업종	정보기술
시가총액(조원)	408
편입일	9월 30일
EPS증감율(2025E)	-
PER(2025E)	76.60
PBR(2025E)	2.30

- Investment point

4QFY25 매출액 113.2억 달러(YoY +46%), Non-GAAP EPS 3.03 달러(YoY +157%) 기록
HBM 수요 유지되는 가운데, 타이트한 일반 DRAM 공급으로 전방위적 가격 인상 진행
eSSD 중심의 NAND 개선세 확인되며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확대

- Risk

전방 수요 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세 둔화

알리바바(9988.HK)

자체 설계 칩을 사용한 AI 모델 훈련, 퀵커머스 경쟁은 3Q25까지가 피크

국가	중국
업종	자유소비재
시가총액(조원)	553
편입일	9월 16일
EPS증감율(2026E)	-15.23%
PER(2026E)	20.40
PBR(2026E)	2.41

- Investment point

2Q25 클라우드 매출(YoY +26%)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단기 주가 모멘텀 형성
퀵커머스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영향이 있으나 경쟁사 메이퇀, 징동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
자체 개발 AI 칩 소식이 호재로 작용, 최근 자체 설계 칩을 사용해 AI 모델을 훈련하기 시작

- Risk

플랫폼 기업 퀵커머스 경쟁에 따른 급격한 수익성 악화, 3Q25 클라우드 실적 컨센서스 하회

쓰위안전기(002028.CH)

중국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의 수혜 기대되는 전력 장비업체

국가	중국
업종	산업재
시가총액(조원)	25
편입일	11월 4일
EPS증감율(2026E)	+28.1%
PER(2026E)	28.60
PBR(2026E)	5.90

- Investment point

송/변전 관련 종합 전력 장비업체로 중국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견조한 실적 성장 전망
진입장벽 높은 고압 GIS 분야에서 기술경쟁력 확보, 중국 정부 입찰에서도 점유율 확대 중
중국 전력망 투자 증가로 2025~27년 매출/순이익 연평균 25% 이상 고성장 지속될 전망

- Risk

정부 입찰 지연, 경쟁 심화

세일즈포스(CRM.US)

기업 코멘트

2025. 12. 4 I 해외 기업 분석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3분기 실적 긍정적이나 아직은 해답을 찾기 어려운 구간

에이전트포스 & 데이터 인프라 사업 확장 긍정적

- FY26년 3분기(10월 결산) 주요 실적 지표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 기록
- 긍정적인 점은 1)에이전트포스 매출 성장 & 기업 도입 지표 고무적인 성과 달성, 2) 인포메티카 인수가 빠르게 완료되면서 전체 데이터 관련 사업(인포메티카 + 데이터 클라우드 + Mulesoft) 규모가 FY27년 약 100억 달러로 확대, 3) 3분기 조정 OPM 35.5%로 견고한 수익성 지속 & M&A 비용에도 불구하고 FY26년 OPM 가이던스 유지, 4) 하반기 자사주 매입 규모 50% 확대 계획의 순조로운 이행은 현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영진의 확신을 시사
-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AI 수익화 관련하여 에이전트포스 ARR 5.4억 달러로 YoY 330% 성장, 유료 계약 수 전분기 대비 50% 증가 등 뚜렷한 모멘텀 확인은 상당히 긍정적. 또한 데이터 인프라 관련 사업 확장은 현재 데이터 플랫폼 시장 성장 속에서 수혜 요인이며, 에이전트포스와 통합되어 시너지 효과 클 것으로 기대
- 주가는 YTD -29%로 부진. AI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이 급부상함에 따라, 이것이 세일즈포스를 비롯한 기존 SaaS 사업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 세일즈포스는 AI가 기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LLM 뿐만 아니라 기업의 데이터, 문맥(context), 워크플로우가 결합 되어야 실제 업무 적용까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는 App(CRM), 데이터 플랫폼, AI 에이전트, 메타 데이터라는 4가지 요소를 다 갖춘 세일즈포스가 경쟁 우위가 뚜렷하다는 입장
- CY2026년은 SaaS 사업자에 대해서 시장에서 제기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과도기로 판단되며, AI 경쟁 구도 변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단계로 보임. 투자 심리를 반전시킬 확실한 변곡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유의미한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3분기 주요 실적 지표 & 전망

- FY26 3분기 매출 102.6억 달러(+9% YoY)를 달성하며 예상치 102.6억 달러에 부합. 조정 OPMOPM 35.5%로 예상치 34.1% 상회하며 11개 분기 연속 마진 상승세 지속. 조정 EPS 3.25달러로 컨센(2.85)를 크게 상회
- 예상치 대비 수익성 선전 원인은 1) 일부 비용 집행 시기 이연, 2) 대손충당금 조정, 3) 영업레버리지 확대
- cRPO(단기계약잔고)는 294억 달러로 YoY 11%, CC(환율 불변) 기준 11% 성장하며 가이던스(10%, 9%) 상회
- AI 전략의 핵심인 '에이전트포스(Agentforce)'와 데이터 부문(Data 360) 모멘텀 강화. 데이터 & 에이전트포스 부문 ARR은 약 14억 달러, YoY 114% 급증. 에이전트포스 단독 ARR 약 5.4억 달러로 YoY 330% 성장. 출시 1년 만에 에이전트포스 계약 건수는 18,500건 넘어섰으며, 유료 계약은 9,500건으로 전 분기 대비 50% 증가함. 에이전트포스를 통한 LLM 토큰 처리량은 3.2조 개에 달하며, 10월에만 5,400억 토큰을 처리하는 등 실제 사용량 급증
-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11.3~112.3억 달러로 예상치 108.9억 달러 상회. cRPO 성장 가이던스는 인포매티카 인수 효과(+5억 달러 환율 순풍)를 포함해 전년 대비 15%(CC 기준 13%)로 제시. M&A 효과 제외하면 9%로 시장 예상치 부합
- FY26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인포매티카 인수 효과 반영하여 414.5억~415.5억 달러(YoY +9~10%)로 제시. 수익성 측면에서는 인수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정 OPM 가이던스 34.1%로 유지, 3분기 강력한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연간 영업현금흐름(OCF)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13% 대비 상향된 13~14% 전망

스노우플레이크(SNOW.US)

기업 코멘트

2025. 12. 4 I 해외 기업 분석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예상보다 빠른 AI 수익화 & 계약 성장 모멘텀에 주목

4분기 제품 매출 성장 가이던스 27%로 예상(25%) 상회, 3개월전 대비 tone-up

- FY26년 3분기(10월결산) 주요 실적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하고 사업 확장 모멘텀 확인. 실적 발표 후 주가 하락 이유는 제품 매출액 성장의 예상치 대비 상회(Beat) 폭이 3%p로 지난 2분기의 빅 서프라이즈(6%p) 대비 무난하게 나오면서 높아진 기대에 다소 못 미쳤기 때문. 2분기 대형 프로젝트 타이밍 영향으로 2분기/3분기 상회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1) 3분기 제품 매출 성장은 29%로 강력한 수준이며, 클라우드 Big 3 사업자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 시작 타이밍이 분기 매출 성장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용량 기반 모델 특성을 고려하면 분기별 Beat 폭 변화 보다는 연간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3개월 전보다 경영진의 사업 전망이 더 좋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FY26년 연간 가이던스를 44.5억 달러로 올려 성장률을 27%에서 28%로 상향 조정
- 2) 주목하는 지표는 계약 성장 가속화와 대형 계약 체결 모멘텀. RPO 79억 달러로 YoY 37% 성장, 전분기 33% 대비 가속화. 신규고객 615개 추가로 최고치 경신,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다 대형 계약 체결 등은 사업 모멘텀 강화 입증
- 3) AI 서비스 ARR이 1억 달러로 확대, 경영진 예상보다 1분기 더 빠르게 달성, AI 비즈니스 모멘텀 강화 확인. 특히 주목하는 점은 AI가 신규계약 50%에 영향을 미쳤으며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제품 채택 속도를 보이고 있음. SNOW는 AI 매출 성장에 대한 확신으로 Anthropic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파트너쉽 강화
- 4) 데이터 엔지니어링, OLTP 서비스 진출 등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성장 기여에 대한 높은 기대감 확인
-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 YTD 72% 상승, 최근 시장 전체적으로 AI 관련 고밸류 종목에 대한 높아진 경계심 등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1) 신규 고객 확보와 계약 성장 가속화, 2) 예상보다 빠른 AI 수익화, 3) 전분기 대비 사업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톤업에 주목. 데이터 플랫폼 시장 성장의 대표 수혜주로서 SNOW가 CY2026년에도 선전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존 관점 유지

주요 지표 & 가이던스

- 매출액 12.1억 달러(+29% yoy), 시장 컨센 2% 상회, 조정 OPM 11%, YoY 450bps 개선, 조정 EPS 0.39달러, 컨센 26% 상회
- 순 매출 유지율 (NRR): 125%로 견조하고 안정적인 수준 유지
- RPO 79억 달러 37% 증가, 전분기 33% 대비 가속화. 615개 신규고객 추가 & 초대형 계약 체결에서 분기 기준 최고치 경신
- 4분기 가이던스: 제품 매출 11.95억 ~ 12.0억 달러 (+27%), 조정 OPM 7%. 제품 매출은 시장 예상치(11.8억) 상회했으나, 영업이익률(7.8%)은 소폭 하회. 1) 상반기에 채용한 세일즈 인력 숙련도 향상과 2) 엔지니어링 AI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집행 때문
- FY26 연간 가이던스: 제품 매출 가이던스 기존 43.95억 달러(+27%)에서 44.50억 달러(+28%)로 상향 조정

AI 수익화 관련 진행 사항

- AI 관련 매출 연간 Run-rate 1억 달러 달성. (예상보다 1분기 조기 달성)
- AI 도입 추세 가속화. 신규 계약 50%에 AI가 영향을 미쳤고, 배포된 사용 사례 28%가 AI 통합함.
- 에이전트 AI 기반 플랫폼인 'Snowflake Intelligence'의 사용 기업 1,200개 돌파
- Anthropic과는 파트너십 확대로 모델 기본 탑재 및 공동 GTM(Go-to-market) 추진.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스노우플레이크 매출이 20억 달러를 돌파

미국 이슈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5.12.03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esearch Assistant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GPU, TPU 논쟁은 시기상조

엔비디아 긍정적 관점 지속

- AI 투자는 이제 시작됐다. 이제 성장을 시작한 시장에서 범용 GPU와 ASIC의 경쟁 걱정은 과하다. 다양한 기관에서 AI 가속기 시장 성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Fortune Business Insight는 2024년 260억 달러에서 2032년까지 2,196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CAGR 30.6%). Grand View Research는 2024년 254억 달러에서 2033년 2,568억 달러(CAGR 29.3%), Astute Analytica는 2024년 437억 달러에서 2033년 3,238억 달러(CAGR 24.9%)까지 AI 가속기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했다. 조사업체마다 다르지만 시장이 7~10배 정도 커질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형성돼 있다.
- AI 사이클을 이끄는 초거대 기술 기업들의 자본지출 확대 발표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CY 2025 대비 CY 2026 자본지출 컨센서스 증가율은 각각 41%, 21%, 34%, 60%다. 네 기업의 자본지출 합산 기준 CY 2026 자본지출 시장 전망치는 4,978억 달러(YoY +36%)다. 각각의 CAGR은 42%, 26%, 43%, 37%, 35% 등이다. 연구기관의 낙관적인 CAGR 전망 30.6%보다 높은 수준이다.
- 초대형 기술 기업들은 단기 실적 기여도가 높은 서버 및 IT 장비 등에 Capex를 우선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데이터센터 덕분에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건설 계획 지표(Dodge Momentum Index-Commercial Building)와 달리 건설 착공(Dodge Construction Starts-Non Residential) 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장기 자산(건물, 토지 등)보단 그 외 자산에 투자가 선행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026년 연간 전망에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센터 초기 투입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IT 장비다.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비용 구성 요소는 가속기다(2026년 트럼프와 버블을 즐기세요, 2025.11.18 발간). 빅테크들의 현재 자본지출 구조는 AI 인프라 투자 중에서도 가속기 중심의 투자가 강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 AI 가속기의 대표적인 공급자는 엔비디아다. AI 모멘텀이 본격화된 CY 2023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매출은 475억 달러(YoY +216.7%)다. CY 2026 데이터센터 매출 컨센서스는 3,052억 달러(YoY +59.6%)다. CAGR은 86%다. 총 유효 시장 전망의 CAGR(24.9%~30.6%)보다 매출 성장률과 CAGR 모두 높다. 엔비디아의 높은 데이터센터 매출 성장률은 경쟁 부재가 아닌 단일 벤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수요 덕분이다.
- 빅테크 Capex 대비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매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고무적이다. CY 2022 기준 주요 4개 기술 기업(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의 자본지출 대비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매출 비중은 9.9% 수준이었지만 점점 확대됐다. CY 2023 32.2%, CY 2024 50.4%, CY 2025(E) 52.3%, CY 2026(E) 61.3% 등이다. Capex 내 컴퓨트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GPU가 여전히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 대상임을 보여준다. 초대형 기술 기업들은 실적 발표에서 자본지출의 절반 이상을 서버 투자 및 GPU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이러한 환경에서 엔비디아의 범용 GPU와 알파벳 TPU를 대체재나 경쟁재로 해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AMD도 엔비디아와의 경쟁 구도와 관련해 시장참여자들의 걱정이 너무 과하다고 강조해왔다. 시장 확장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다.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양사의 주가가 디커플링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후 두 기업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금 제기되는 TPU 도입에 따른 엔비디아의 독점력 붕괴 논리도 동일한 패턴의 과잉 해석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시장은 경쟁 구도를 논하기보단 AI에 대한 폭발적 수요의 증가, 투자 확대 등의 연속성에 주목할 시기다. 메타의 2027년 알파벳 TPU 임대 소식은 엔비디아의 단기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기 변동성은 중장기 AI 인프라 성장사이클에 대한 익스포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한다.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한다.

미국 이슈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I 2025.12.09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esearch Assistant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미국 정부의 H200 판매 승인

미국 정부와 엔비디아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

- 미국 정부의 H200 수출 승인은 엔비디아 및 AI 인프라 기업들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6년 연간 전망에서 추천한 엔비디아 및 AI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지속한다.
-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중국 및 그 외 승인된 국가에 엔비디아의 H200 제품 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국가에 판매된 엔비디아 매출의 25%는 미국 정부가 수수료 개념으로 징수한다. 이번 결정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 트럼프(공화당)에도 유리할 것이다.
-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FY 4Q26(다음 분기) 가이던스와 시장 컨센서스엔 중국향 매출 재개가 반영돼 있지 않다.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승인된 제품은 저사양 H20이 아닌 H200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데이터센터 사업부 매출과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했지만,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법인을 통해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확보해 왔다. 추론은 중국산 반도체로도 가능하지만, 학습은 성능 격차로 인해 어렵기 때문이다. 엔비디아가 직접 중국에 학습용 GPU를 판매한다면 억눌렸던 중국의 수요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 중국향 H200 판매가 확대되면 블랙웰과 루빈 플랫폼의 본격 양산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수익성 둔화를 방어할 것이다. 엔비디아의 단기 이익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해 약해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다. 블랙웰 및 루빈 플랫폼의 양산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차세대 플랫폼부터는 시스템으로 판매하기 때문이다. 랙 스케일 신제품은 초기 원가율이 높다. 기존 중국 수출용 H20도 이익률이 낮은 제품이다. 미국 정부가 H20 중국 판매액의 일부를 가져간다면 이익은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고마진 제품인 H200의 중국 수출 재개는 이러한 우려를 완화할 것이다.
-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수출 승인은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는 2026년 연간 전망을 통해 미국의 국가 전략을 AI Full Stack Package(7월 23일, 백악관 공시)라고 정의했다. 미국은 마셜플랜이나 워싱턴 컨센서스처럼 전 세계에 미국산 AI 인프라를 설치해 기술 표준으로 만들고자 한다. 애플의 설치 기반 전략과 유사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AI 인프라 및 플랫폼 확산을 지원하는 '제네시스 미션(산업 통합 AI 플랫폼 구축 및 확장)', '원 룰(AI 규제 완화 및 일원화)'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AI 생태계에서 창출된 부를 미국 경제 성장과 복지에 재투자할 것이다.

  * 애플은 잘 확산된 하드웨어(아이폰 등)와 iOS 플랫폼으로 구축한 생태계를 활용해 알파벳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 매출을 올린다(예: 구글의 사파리 기본 검색 엔진 채택 비용 등). 애플은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재투자(성장) 또는 주주 환원 강화(자사주 매입, 배당 등) 등에 활용한다.

- 이번 결정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가계 자산의 68%는 금융자산이고, 금융자산의 약 50%는 주식이다(직/간접 투자, 연금 포함 등). 증시 상승은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경제 호황으로 이어진다. 증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인 AI 섹터의 모멘텀이 중요하다. AI 인프라 기업들의 중국 매출 회복 기대감이 커진다면 내년 중간 선거를 앞 둔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될 것이다.

2025년 12월 9일 I Global Equity

금력영자(6680.HK)

중국 희토류 수출 확대로 인한 수혜 기대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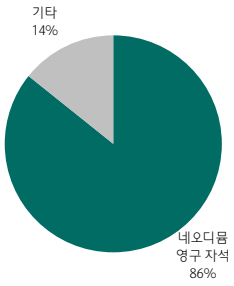
TP(컨센서스)	23.98 HKD
CP(12.8)	18.90 HKD

Key Data

국가	CHINA
상장거래소	Hong Kong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jlmag.com.cn
시가총액(십억HKD)	48.1
시가총액(조원)	9.1
52주최고/최저(HKD)	29.3/7.46
주요주주 지분율(%)	
CHINA STATE OWNED ENTR	14.91
RUI DE HONG KONG LTD	8.59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4.9)	6.8	107.4
상대	(4.3)	(2.8)	76.1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	6,688	6,763	9,100	11,457
영업이익	560	269	839	1,134
순이익	564	291	759	1,014
EPS(CNY)	0.2	0.2	0.6	0.8
EPS(YoY, %)	0.0	0.0	154.5	37.5
ROE(%)	8.2	4.1	10.3	12.8
PER(배)	21.7	33.4	31.1	22.9
PBR(배)	1.7	1.4	3.1	2.9
배당률(%)	2.8	1.6	1.8	2.3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기술력 인정받은 글로벌 4대 네오디뮴 영구자석 생산업체

금력영자(JL Mag)는 전기차와 로봇용 모터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 기반 네오디뮴(NdFeB) 영구자석의 글로벌 4대 생산업체 중 하나로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절차 간소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현재 중국의 글로벌 네오디뮴 영구자석 생산 점유율은 약 85%로 압도적이며, 글로벌 4대 생산자 중 금력영자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중국 기업이다. 2025년 금력영자의 생산능력은 약 4만톤으로 중과삼환(약 5만톤)에 이어 2위 규모이나 NEV/풍력/로봇용 고성능 제품 생산 비중은 중국 내 최대 규모다. 금력영자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 중 유일하게 테슬라, BYD 등 글로벌 상위 전기차 제조사를 핵심 고객사로 확보했고, 테슬라와의 기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용 영구자석 공급업체 선정 가능성도 유력한 상황이다. 금력영자는 입계 확산(Grain Boundary Diffusion) 기술을 통해 원가가 높은 중희토류 사용량(디스프로슘/터븀 중량 비중 50~80% 축소)을 최소화했으며, 자체 개발한 정밀 가공, GBD 핵심 장비를 생산 라인에 적용 중이다.

수출 전면 허가 획득으로 해외 출하 및 점유율 확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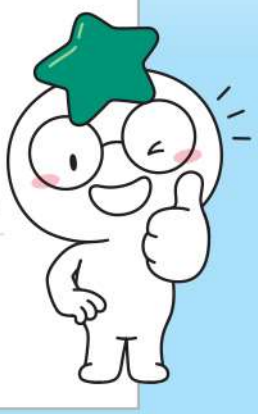
금력영자는 최근 간소화된 희토류 수출 제도 시행 이후 첫 정부 허가를 획득해 2026년 수출 물량 확대와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금력영자는 이번 수출 허가를 획득한 3개의 영구자석 생산업체 중 유일하게 모든 고객사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허가를 획득했으며, 로컬 경쟁업체인 중과삼환/영파운승은 일부 고객에 대한 제한적 허가를 획득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금력영자의 해외 매출 비중은 17.5%, 미국 비중은 약 7% 수준으로 추정된다. 경영진은 장기적으로 동남아/동아시아/유럽 지역에서 수요 확대 기대감을 근거로 수출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품 대체가 어려운 만큼 관세 인상분의 가격 전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오더 확보, ASP 인상 등이 실적 업사이드 요인

금력영자의 순이익은 희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고원가 재고 영향 해소로 2023~24년 역성장 이후 2025년부터 고성장세를 재개할 전망이다. 올해 3분기까지 재고 관리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방어했고, 경영진은 2025년 GPM 15~20%대로 정상화를 예상했다. 향후 주된 실적 업사이드 요인은 테슬라 로보틱스 오더 확보,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에 따른 ASP 인상 등이 될 수 있다. 금력영자는 올해 로봇용 영구자석/로터, eVTOL 제품 소량 출하를 시작했고, 2026년 이후 휴머노이드 대량 양산 단계 진입에 따른 로봇향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금력영자의 주가는 역사적 평균 수준 P/E('26년 12MF 23배)에서 거래 중으로 10월 중국 시장 조정과 함께 54.3% 하락해 단기 투자 매력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HANA Global Weekly

Tel: 02-3771-사내번호 E-mail: @hanafn.com

	이름	직책	담당분야	사내번호	E-mail
센터장					
	황승택	**센터장**	**리서치센터 총괄**	**7519**	**sthwang**
글로벌투자분석실					
	이재만	**실장**	**국내/선진국투자전략**	**7547**	**duke7594**
	김경환	팀장	중국/신흥국전략	7616	khstyle11
	김두언	수석연구위원	국내외 주식시황	7509	kimdooun
	임승미	연구위원	포트폴리오	7786	seungmi_lim
글로벌 매크로·투자전략팀	김근아	선임연구원	신흥국전략	7698	geunak
	강윤형	선임연구원	포트폴리오	8024	kangyh
	김성은	선임연구원	중국/신흥국전략 RA	7520	seongeunk
	박준우	연구원	시장대리인/포트폴리오 RA	8116	junwoo
	박성제	연구원	국내/선진국투자전략 RA	8576	parksungjae
	안범수	연구원	국내외 주식 시황 RA	3224	beomsooahn
해외주식분석실					
	박승진	**실장**	**글로벌 ETF**	**7761**	**sj81.park**
	김재임	수석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7793	jamie
	강재구	연구위원	선진국기업분석	3386	jaekoo.kang
	백승혜	연구위원	중국/신흥국기업분석	7521	sh_baek
	송예지	선임연구원	중국기업분석	8143	yeajisong
	김시현	선임연구원	미국/선진국기업분석	7513	sihyun_kim
	황수미	선임연구원	글로벌 ETF	7721	shwang
	안기량	연구원	중국기업분석 RA	7736	giryangan
	송종원	연구원	선진국기업분석 RA	7261	1223sjw
	이재은	연구원	선진국기업분석 RA	3743	jaeeunlee
	전종훈	연구원	글로벌 ETF RA	3273	jonghoonjeon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